

섬김, 신앙의 아름다운 극치

김경진 <<< 백석대학교 교수 / 신약학

우리는 기독교의 덕목을 말할 때 대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고린도전서 및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소개한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한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과, 그 주님을 믿고 세상의 온갖 역경과 고난을 참으며 내세를 기다리는 소망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섬기는 사랑을 우리는 찬미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보여 주신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도 특징적인 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주님의 사역에서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서도 충분히 발견된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전기라고 볼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확보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그런데 누가는 그 복음서의 병행구절에서 이어서 더 나아가 섬김의 주제를 더욱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 다시 말하면 누가는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제시하는 마가복음의 구속적 기독론을 대신하여 섬김을 강조하는 봉사적 기독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 사회복음(social gospel)적 특징과 맞물리며 누가신학의 사회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둔 채, 이 짧은 글에서 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착안하여(행 1:1)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주제를 풀어 가고자 한다. 신약성경에서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은, 비록 역사적으로 먼저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성격상 여전히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 및 행적에 대한 부차적인 해석이므로 우선 복음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후 요한복음과 서신 및 바울 서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해할 때 다분히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주님이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인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고자 함인 까닭에 이러한 접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공관복음서에 묘사된 주님의 모습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사실 공관복음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론을 구성하는 주님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강조가 그리 많지 않다. 그 좋은 예로,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소위 ‘여행설화’, 막 8:27-10:52) 말씀하신 수난예언을 보면, 한결같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구(緘口)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막 8:31; 참고 막 9:31; 10:33-34). 여행설화에서 세 번에 걸쳐 기록된 이 수난예언

에서 공관복음서기자들은 예외 없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 이란 사실만을 언급할 뿐 그 목적 및 이유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마가와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지상 사역 중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예루살렘 입성(入城) 직전의 일이고(막 10:45//마 20:28)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이다(막 14: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는 여기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 26:28]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더 구속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공관 복음 전체에서 이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님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곳은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주님의 죽음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들에게 이것은 제법 문제가 될 법한 일이다. 어찌하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목적 혹은 이유에 대하여 별로 발설하지 않은 것일까?

아마도 이에 대한 답변 중 하나는,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죽음의 구원론적 의미가 이미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에 공관 복음 기자들이 이를 반복하고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울서신과 비교할 때 대체로 복음서에 교리적 진술이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바울 서신 저술 이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및 실천의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까닭에 구원론을 포함하여 교리적 설명보다는 제자도 혹은 청지기도 등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가 강조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공관복음 기자들은 과연 주님의 교훈과 사역을 어떻게 제시하고자 하였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관복음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의 지상 사역의 목적이 단순히 인간 영혼의 구원만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주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기는 하지

만, 공관복음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사역과 교훈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공(功)을 들여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낮게 하며, 배고픈 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등 육신적인 일들도 많이 행하셨다. 이런 사실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 대학교의 성서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바르게 지적하였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말씀으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으로 번역되었다. 만일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읽는다면,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보다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¹⁾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공관복음 기자들이 복음의 선포와 병 고침을 병행해서 기록한 사실에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막 6:12-13; 참조. 눅 9:6; 마 4:23; 9:35).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은 주님의 자신의 사역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마 4:23-24a). 요컨대 주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을 그 사역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또한 병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섬김의 표현인 것이다.

1)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Matthew*, vol. 1 (Daily Study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75), 354.

이런 맥락에서 공관복음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관복음이 영혼 구원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²⁾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신중하게 참작할 때, 주님 사역의 목적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각종 질병 치료를 포함하여 오병이어(막 6:30-44), 칠병이어(막 8:1-10) 등의 급식(給食) 기적들에 나타난 관심과 배려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이러한 사회적 구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책은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이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일명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the Gospel for the Poor)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L 자료 중 대부분이 빈부(貧富) 문제와 관련된 재물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누가를 통한 성령 하나님님의 관심을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 야고보서 역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을 언급하면서 약자로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약 2:1-13).

그러면 기독교 교리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울서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사회 구원적 요소는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바울서신들은 복음서와 비교할 때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³⁾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세운 초기 교회들에서 빈부의 차이에 따른 갈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얼핏 보면 - 가령 고린도전서 1장 26-29절 같은 경우 -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안에 빈부의 차이로 인한 갈

2) "Union of care for men's bodies with care for their souls is characteristic of Christ and of Christian missions."; A. Plummer,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ICC; Edinburgh: T & T Clark, 1922), 240.

3) 알렌 버히, 김정진 역, 『신약성경 윤리』(서울: 솔로몬, 1997), 250-51.

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 보면 그런 문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사실 바울 서신 중에서 ‘빈궁한 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오직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뿐이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 공동체, 즉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 세웠거나,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교회들의 사회적 상황(Sitz im Leben)과 연관이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이들 바울 공동체를 사회적 혹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타이센(Theissen)과 믹스(Meeks)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 공동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는 바와 같이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들로 구성된 가난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자나 장인 등의 중간계층으로 구성된 공동체였다고 한다. 따라서 바울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 공동체의 그것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로, 바울로서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선적이었을 것이다. 초기 신앙공동체 역시 바울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고전 7:1; 8:1; 12:1; 16:1), 따라서 서신의 주된 내용은 율법에 대한 견해 및 행위와 믿음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신학적 내용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바울 서신 전체가 모두 교리적 진술이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바울 서신 후반부에는 전반부의 교리적 진술에 뒤이어 윤리적 교훈이 소개되고 있다(예, 롬 12-16장).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섬기셨던 것으로 알려진 공관복음서의 사회 구원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다(참고, 눅 4:18-1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과 바울의 신학 사이에는 약간의 불연속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 및 복음서 기자들과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적, 사회적 배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서의 증거에 따르면, 주님은 한결같이 이 땅의 인류를 섬기러 오셨다. 물론 그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인류의

영혼 구원이지만, 그와 함께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주님이 보여 주신 삶의 궤적은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통한 섬김이었다. 우리는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가, 마태복음의 취임설교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한 준비로서 회개를 강조하는 반면에(막 1:15; 마 4:17), 누가복음의 취임설교에는 그러한 언급 대신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 된 자, 눈 먼 자 등이 복음의 우선적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눅 4:18).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눅 14:13, 21), 귀 먹은 자, 나병 환자(눅 7:22), 우는 자, 주린 자(눅 6:20-21)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명단을 자주 언급하며, 그 공동체 내의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을 구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눅 11:41; 12:33). 특히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마태복음 6장 19-20절의 병행구절로서 구제를 강조하는 누가신학의 사회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진술이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구제에 대한 강조는 주님 사역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이 주님의 섬김의 대상이었음을 밝히 보여 준다.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설교를 마치고 하산하신 후 주님이 대면한 사람들의 면모 역시 주님의 섬김 사역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나병 환자(8:1-4), 백부장의 노예(8:5-13), 베드로의 장모(여자, 8:14-17), 귀신 들린 사람(8:28-34). 그들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마을 밖에 살아야만 했던 버림 받은 나병 환자들, 사람은 사람이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노예, 2급 인간으로 간주되어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여자,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공동묘지에서 살아야만 했던 저주받은 사람이었다. 바로 이들이 주님이 산상설교 이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 처음 상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구원과 복음의 보편성만을 시사하는 것

이 아니라, 불우한 이들을 섬기는 주님 사역의 본질적 성격을 너무도 잘 밝혀 주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이런 특징은 사실 1장의 족보에서 이미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족보는 가장 유대적인 특징을 지님과 동시에 또한 비유대적 성격을 아울러 지니는 양면성을 드러내는데, 이 비유대성은 곧 주님의 섬김 사역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대성이란,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다말, 룻, 리합, 우리야의 아내, 즉 밧세바), 그 여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로써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이란 사실을 가리킨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이러한 여자들, 이방인 및 부정한 자들이 등장하지 않음을 참작할 때, 참으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지 않을 수 없다. 메시아이신 주님의 족보에 것처럼 천한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 있고, 또한 그들이 성적(性的)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문제 있는 여자들을 마태가 주님의 족보에 포함시킨 것은 신분의 고하(高下)와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복음의 보편성과 아울러 장차 주님이 바로 이러한 낮고 천한 자를 섬기실 것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왕으로 대접 받기를 즐겨하기보다는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오시어 그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신 것은 최고 및 최상의 섬김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부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 받는 자들을 저주하시며 오히려 가난한 자와 주린 자와 우는 자 및 핍박 받는 자들을 옹호하신 것은(눅 6:20-24; 참조. 눅 1:51-53)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마 2:2), 왕으로서 대접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종처럼 낮추어(막 10:45; 빌 2:7),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한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을 섬기시는 겸손함을

친히 보여 주셨다.

리차드 버릿지는 그의 책 『네 편이 복음서, 한 분의 예수』에서 에스겔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등장하는 네 생물, 즉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를 네 복음서에 적용하여 복음서의 특징과 아울러 각 복음서의 기독교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미지는 소, 즉 짐꾼(burden bearer)으로 제시한다.⁴⁾ 그러나 짐꾼인 소가 자신의 짐이 아니라 남의 짐을 지듯이, 자신이 져야할 짐이 없으신 주님도 남의 짐을 대신 지신다. 누가복음에서 남이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이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가난한 자, 지체 장애인, 맹인들로 나타난다. 즉 이들이 바로 황소이신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짐으로써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의 성격을 띠면서, 봉사적 기독교론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이처럼 주님이 남의 짐을 지고 나뉘므로 섬김의 도를 보여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 역시 내 짐 지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혹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혹은 생계가 막막한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아 그 짐을 대신 져야할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깊어져야 할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버릿지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상징은 사자가 되는데, 알다시피 사자는 백수(百獸)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바로 온 인류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왕으로서 주님은 마가복음의 전반부(1-8장)에서 무리들의 육신적 필요, 즉 각종 질병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치유 및 급식(給食) 기적을 베풀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다가, 후반부(9-16장)에 들어서는 영적 필요, 즉 인류의 영적 구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들을 섬기셨다. 왕으로 오셨으나 군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종처럼 낮추어 인류를 섬기시다가 끝내는 십자가 죽음으로 섬김의 절정

4) Richard A. Burridge, *Four Gospels, One Jesus?: Symbolic Reading*, 김경진 역, 『네 편이 복음서, 한 분의 예수』(서울: UCN, 2000).

을 보여 주셨던 것이다(막 10:41-45). 죽음보다 더한 섬김이 어디 있느냐(요 10:15)

마태복음의 상징을 버릿지는 사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으로 풀이한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교육과 배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제자 파송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은(마 10:5-11:1) 마지막 파송(마 28:18-20) 때까지 계속적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린 지상(至上) 명령(“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에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과 “가르치라”는 명령이 포함된 것은 매우 적절한 연결인 것이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제자들을 인내를 갖고 가르치시는 선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 제자들, 즉 따르는 이들을 섬기는 모습인 것이다.

섬김이란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미덕이다. 즉 마음이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덕인 것이다. 따라서 섬김이란 본래 노예와 같이 신분이 낮고 천한 이들이 행하는 사역인데, 우리가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주인의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종의 신분이 되어(빌 2:5-8),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하여(요 13:1-20), 거지와 맹인처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및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짐을 대신 짐으로써 육신적 필요를 채우심을 통하여(눅 22:24-27), 영생 및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을 통하여(마 28:18-20), 그리고 마침내 당신에게도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온 인류를 위하여 포기하심을 통하여(막 10:45),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으면 섬김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한없이 높으신 주님이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 온몸과 마음으로 보

여 주신 이 아름다운 섬김의 진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최상의 미덕인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 김경진 총신대학교(B.A., M.Div.)와 서울대학교(M.Ed.)를 나와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와 글래스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 및 기독교신학교 부학장으로 있다.